



오늘의 날씨와 생활

4월 22일 목요일 음 3월 11일 (3월)

기상정보

대체로 흐림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16℃, 낮 최고기온은 21-24℃로 전망된다.

Table with 4 columns: Time (오전, 오후), Humidity (습도), Wind (풍속), and Precipitation (강수량). Rows show 30% humidity and 30% precipitation for both morning and afternoon.

Table with 2 columns: Time (해돋이, 해질녘) and Temperature (기온). Rows show sunrise at 05:56 and sunset at 19:10, with temperatures ranging from 13.41 to 14.06.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주의 높음

Table with 4 columns: Category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Status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and Value (PM10, PM2.5).

주간예보

Table with 3 columns: Day (내일, 모레), Weather (흐리고 비), and Temperature (17/22℃, 15/20℃).



월드뉴스

백신접종 선도 이스라엘-영국 '여행 논의'

관광객·사업가 상호 방문 고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선도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영국이 백신을 접종한 관광객과 사업가의 상호 방문 허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스크 없이 외출한 텔아비브 주민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양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 엄청난 진전을 통해 '녹색 여행 통로' 시행 가능성을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로'의 실행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가비 아슈케나지 이스라엘 외무 장관과 코로나19 정책을 배우기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한 마이클 코브 영국 국무조정실장이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성명을 전했다.

다만 앞서 이스라엘 정부는 백신을 접종한 외국 관광객의 입국을 다음 달 23일부터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슈케나지 장관은 "우리는 영국과 함께 관광객과 사업가들이 안전하게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상호 백신 인증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관광객 입국 허용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한 경기를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빠른 접종 덕분에 감염 관련 지표가 빠르게 개선되자, 이스라엘 정부는 대부분의 봉쇄 조치를 풀었고 지난 18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했다.

한리일보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rmation, website, and subscription rates.

목요일론



김안봉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중산간 도로변에 렌터카가 아닌 자동차들이 가득하다. 가을에는 벌초 행렬로 도로가 막힐 정도이지만, 봄철엔 고사리순을 꺾으러 나온 인파로 북적인다.

고사리의 뿌리줄기는 1m 이상을 땅속에서 자라면서 곳곳에서 잎이 돋아난다. 잎은 모양과 크기가 종에 다르며, 잎-줄기-뿌리의 구별이 뚜렷하다. 또한 꽃이 피는 대신에 잎 뒷면에 모여 있는 홀쭉로 번식하거나 뿌리줄기를 뺀 거기서 새순을 내기도 한다.

식용 고사리는 대개 햇빛이 들어오는 숲이나 들만에 고루 분포한다. 아침 햇

아낌없이 주기만 하는 고사리 형제처럼

살에 더 잘 보이며, 낮에는 그늘져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초보자는 고사리가 올라와 있어도 그냥 지나치기 십상이다. 친구끼리 또는 부부끼리 가도 각자가 아는 방식으로 캐며, 심지어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비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고사리는 꽃을 피워서 나비와 새를 유혹하지 않으며, 소와 말은 아예 먹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사실 익히지 않은 고사리순에는 비타민B1을 분해하는 티아미나아제가 들어 있어서, 다량의 고사리를 섭취할 경우 비타민B1 결핍 증인 각기병에 걸릴 수 있다.

고사리 순을 캐는 것은 고사리순을 따고 나뭇잎을 따는 것과 다르다. 고사리 순을 따는 것은 고사리 순을 따는 것이다. 조금만 늦어도 잎으로 변해버린다. 특이하게 제주의 3

월부터 4월말까지는 '고사리장마'라 해서 축축한 비 날씨가 이어지는 날이 많아 고사리가 자라기에 딱 좋다. 가게 영업을 잠시 중지해야 할 정도로, 제주산 고사리의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

고사리는 꽃을 피워서 나비와 새를 유혹하지 않으며, 소와 말은 아예 먹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사실 익히지 않은 고사리순에는 티아미나아제가 들어 있어서, 다량의 고사리를 섭취할 경우 비타민B1 결핍 증인 각기병에 걸릴 수 있다. 이 병에 걸리면 신경 조직, 특히 팔과 다리의 신경이 약해지고 근육이 허약해진다. 가축 또는 노루와 같은 야생동물이 고사리를 건들지 않는 이유이다.

제주 속담에 중에 '고사리 아홉 섬제 인다(고사리는 아홉 형제이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는 고사리는 번식력이 아주 강해서 아홉 번씩이나 꺾어도 계속해서 새순이 돋아난다는 의미이다.

제주 사람들이 제삿날이나 명절 때에는 꼭 올리는 음식 중에 하나가 고사리다. 자손이 번성할 수 있도록 후사를 잘 봐달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 그러나 고사리순은 산 사람이거나 죽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 방역 수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재난지원금 발표에는 귀를 쫑긋 세우다가도, 집합금지나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에는 분노할 정도로 민감하다. 지칠 대로 지친 시민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정성을 다한 시책을 제시해야 한다. 고사리가 지천에 깔려 있어도 삶지 않으면 효용이 없듯이,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면 곤란하다. 한 번 아니라 아홉 이상 숙여서라도 올바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고사리순을 꺾듯이 두루두루 살펴야 고사리 삼행시(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가 저절로 퍼지는 것이다.

열린마당

빈집 정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



고성협 제주시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과거 해안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도시가 점점 확장되며 용담, 삼도, 건입동 지역 등 구도심에는 인구 감소와 그에 반한 늘어난 빈집이 방치되면서 쓰레기가 넘쳐나고 고양이들의 울음소리가 소음이 되고 비행 장소가 되고 있다.

읍면지역 상황도 나을게 없다. 추자면인 경우 과거 1960~70년대까지는 8000여명이던 인구가 지금은 2000명도 안되는 실정이다. 당연히 빈집으로 인해 주변 생활 여건도 나빠지지만 그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보기좋은 상황은 아닐 것이다.

2019년 제주도에서 실시한 빈집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제주시 지역 빈집은 2737동이다. 그 중 동지역은 1241동, 읍면지역은 1496동에 이른다. 부지 면적만 계산해봐도 축구장 50여 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심각한 현실이

지만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회는 2017년도에 '빈집및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도심지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활용방안까지도 요구하도록 입법했으며, 농어촌지역에는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농어촌지역내 생활환경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고, 그 계획안에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과 함께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건축과)는 2012년도부터 올해까지 139동의 빈집을 철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해마다 예산은 제자리인데 빈집은 늘어난다. 한편 국회는 과거의 관행으로는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새로운 특례법들을 제정했다. 제주시도 변해야 한다. 관련법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른 국비 확보 및 지역지자, 마을별 정비사업으로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빈집의 변신을 고민해야 한다. 골치덩이가 아닌 친근한 내 이웃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채꽃축제건기대회를 마치며



양광순 서귀포시 관광협의회장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간다. 하지만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할까? 여행을 떠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 특히 여행은 거리 두기 속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에 관광1번지 서귀포시를 찾아 치료, 치유, 힐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어 하고 있다.

서귀포시관광협의회는 서귀포시와 함께 지난 4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제23회 유채꽃축제건기대회를 개최했고, 여러분의 도움으로 안전사고 없이 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

하루 100명 제한, 9일간 900명의 소규모로 대회를 진행했지만, 건기 마

니아와 제주도민과 그들의 가족의 함박웃음을 오랜만에 볼 수 있었다.

건기대회 완보증을 받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에서 든든하고 희망찬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참가자들의 웃음에서 우리의 미래가 어둡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하루 평균 3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유채꽃건기대회 행사장과 코스에서 봉사했다. 참가자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다독이는 봉사자들의 모습에서 서귀포시 관광협의회장의 수장으로써 코로나라는 위기에 좌절하지 않고 길을 잃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신년덕담으로 항상 '울 해만 같아라'라는 얘기를 나눈다. 하지만 내년은 달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 유채꽃건기대회를 위해 분방 다른 풍성한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다.

마지막으로 행사의 개최와 취소를 수십 번 고민하면서도 행사를 개최하기로 용단을 내려준 서귀포시장님과 관광진흥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방역수칙을 준수해준 참가자와 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 도민들에게 모든 공을 돌린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Large advertisement for travel services, including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and '특가진행' with date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2022년 2월달 식재용 탱자묘 1년생 사전분양계약 한림종묘' with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서귀포시정소식' (Seogwi City News) listing various public notices and services.